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최 정선(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I. 『삼국유사』 효선 편을 읽는 새로운 시선

『삼국유사』 효선 편에는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향득사지할고공친(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 손순매아(孫順埋兒 興德王代), 빈녀양모(貧女養母)의 다섯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효선 편 의 설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효선 편 의 특수한 성격 규명과 유교와 대비되는 불교의孝관념에 대한 해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즉, 『삼국유사』 체제와 성격에 비추어 효선 편의 특수한 구성 원리를 밝히거나, 효의 실천적 의미에 비추어 신라시대 효 사상과 그 사회적 의미를 유교적 효와 대비하여 밝혀보는 연구로 대별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고승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삼국유사』 효선 편만의 독특한 성격 - 편자 일연의 노모에 대한 남다른 효심, 호국불교의

-
- 1) 이기백은 효선편 설정 배경에는 일연의 노모에 대한 개인적인 효성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즉, 유교의 효와는 다른 불교적인 효를 설명함으로써 당시 유교의 비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나름의 대응을 하려고 했다고 보았다.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동이문화』 2, (서강대학교), 1983.) 간호옥은 『삼국유사』 효선 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효의 불교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란 구양(口養)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헤아림을 의미하며, 효의 실천을 통하여 호국불교 사상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간호옥, “한국 說話문학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孝사상 연구”, 『인문과학논집』 9, (강남대학교), 2000)

역할과 불국토 건설의 염원을 일관되게 보여 주는 수미상응(首尾相應)의 구조2)- 을 해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와 구별되는 불교적 효 실행의 독자성을 밝혀냄으로써 『삼국유사』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는데 일조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축적된 연구 성과들은 효선 편 설화에서 강조하는 효행의 방법과 실천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유교에 대한 불교의 방어적 기제 논리로만 설명함으로써3), 효선 편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화회적 의미 해석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들 효행설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친봉양4)을 단지 유교적 효와 대비되는 불교적 효의 의미정도로만 해석하였다.5) 가부장적 가족

-
- 2) 조미연은(『三國遺事』 『孝善』 編 研究, 국문학논집, 17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000)에서 효선편의 이야기들은 불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효라는 현실에서의 실천윤리를 통해 호국불교 사상을 강조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신이함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紀異편과 수미상응을 나타낸다고 파악하였다. 즉, 불교적 이상세계를 건설하는데, 효가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序와 結이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 3) 『삼국유사』에 효선편이 실리게 된 배경을 일연 개인의 효성이라고 본 견해가 이에 속한다. 민영규는 “『삼국유사』에는 가난하게 살다간 고독한 어머니의 초상이 자주 그려 나온다.”거나 “진정사조를 적어 내려가면서 일연은 어쩌면 그 스스로의 모습을 여기에 겹쳐놓고 있었을지 모른다.”(민영규, “一然과 陳尊宿” 『學林』 5,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83, 2-5.) 라고 하였다.
- 4) 효선편의 특색이 모에 대한 효의 강조에 있다고 본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민병하는 효선 편에는 어머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아버지에 대한 효는 단지 한 편밖에 실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일연 개인의 모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적 효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중요시하는 유교주의와는 그 방향을 달리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연이 유교주의에 비판적이었다고 보았다.
민병하 앞의 논문, 235쪽
- 5) 조미연은 효의 진정성이 養口만이 아닌 養志에 있음을 잘 형상화한 것이 효선 편 이야기들로서 이들 설화는 세속적인 차원의 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한 효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효가 바탕이 되어 내세의 복락을 보장받음으로써 유교의 효 이상의 것이 불교에 내재되어 있음을 집약하고 있다고 보았다.(조미연, 앞의 논문, 219-221쪽)

제도를 중요시하는 유교에 비해 불교는 어머니에 대한 효행도 강조함으로써 유교의 비난을 모면하려 했다는 방어원리로써만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일단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 봉양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교의 출가행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였는데 이 역시 불교의 출가는 부모의 정토왕생을 기약하는 행위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효도행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유교의 비판을 면하려고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유교를 의식한 불교의 소극적 대응논리에 불과할 뿐 어머니에 대한 효행이 특별히 강조된 이유를 심도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상의 원인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불교의 시각에서 이상화하였던 효의 양상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효선의 이야기에는 불교와 여성, 그리고 효행이라는 세 가지 중심축들이 정교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교직되어 있다. 때문에, 불교의 시각으로 효를 실천하는 여성으로서의 이상화된 이미지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효양을 받는 주체로서의 어머니, 효 실행의 상담 조언자로서의 아내, 자신을 사노비의 처지로 전락시켜가면서까지 효친을 행한 딸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효선 편의 이야기들은 불교와 여성의 관계 망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효선 편에 실린 다섯 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당대 불교가 여성(어머니, 아내, 딸)에게 요청하였던 이상적인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선 설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져 온 불교와 여성, 효와 여성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불교가 내밀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강제하였던 역할과 그 의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고대 삼국에서 불교가 이상화했던 여성의 이미지를 밝혀냄으로써 불교가 일반 서민들에게 종교적인 신념체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을 흡수해 나간 설득논리를 추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

지의 투영은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남성적 시각에 의한 여성 이미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중층적 의미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선은 나아가 『삼국유사』 <효선>편이 차지하는 의미와 편목 구성상의 역할을 규명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II. 지혜와 결단의 어머니

효선(孝善)이란 효와 선, 두 가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효이란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정법(正法)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행을 행함으로써 불교에서 말하는 선(正法)을 아울러 성취한다는 것인데, 효하면서 동시에 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에 대한 효행과 불교적 수행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불교적 실천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효행이 곧 불교적 효인 정법에 이르는 길임을 명시함으로써 효행을 권장하고 궁극적으로 효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세속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효선의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기본 주제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와 가족유지의 근간이 되는 효를 불교적으로 완성하여 성취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설화들인 것이다.

신라 중대에 불법에의 정진과 부모에 대한 효성은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수도를 하기 위해 자식이 출가하면, 부모는 자식의 봉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 남겨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불교는 출가행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출가가 곧 부모를 방기하는 불효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다.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와 종교적 신앙 사이의 조화를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⁶⁾ 효선의 첫머리에 실린 <진정사

효선쌍미> 설화는 효행과 불법의 정법을 조화롭게 모색하여 긍정적 성취를 이뤄 낸 이야기이다. 특히 설화는 효 실천의 방법론적 모색과 탐색을 통해 다기한 실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가난하고 또 그로인해 미혼일 수밖에 없는 진정에게 효 실행의 문제는 주체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모친을 흠족하게 봉양할 수 없었으며 미혼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고 출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진정에게는 삶은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곡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모는 “불법(佛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人生)은 너무나 빠른 것이니, 효도를 마친 후라면 또한 늦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찌 내 죽기 전에 네가 불도(佛道)를 아는 것만 하겠느냐.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아들의 출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어머니는 부모에 대한 효와 불교적 정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효와 선을 동시에 이루도록 유도한다. 어머니는 시주를 통해 궁핍한 현세적 삶에서 벗어나 불도에 입문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효도를 다 한 후 출가하려는 아들을 독려 재촉하여 하루라도 빨리 더 큰 깨달음의 세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하였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결단”은 아들의 출가와 큰 깨우침을 가능하게 하여 최상의 효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으로 성취된다. 현세의 작은 망상에 사로잡혀 커다란 깨우침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증생들을 대각하게 하여 불법 안으로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결단은 사후추선에 의한 왕생으로 보상된다. 이러한 보상장치는 불교적 시선에서 기대되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욱 공고화하여 신념화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진정의 효성과 불법 수행의 과업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면에서 진정을 혼란없이 바른 길로 이끈 어머니의 역할 역시 동일한 무게감으로 다루고 있다. 진정의 어머니는 지혜의 여성이

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인도자로서의 여성이다. 효도를 행하는 자식의 도리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⁷⁾.

진정은 의상법사가 설법을 통해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상법사의 문하에 들어 불법에 정진하였다고 한다.⁸⁾ 당시 화엄사상은 우주의 현상과 본체를 연기법에 의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원과 해탈을 위한 실천을 강구하였다⁹⁾. 따라서 현세에서 삶의 질곡을 건디어 내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하루빨리 속세인 예토를 떠나서 극락인 서방정토로 왕생하기를 기원하였다. 진골귀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창사(創寺), 법회(法會), 조불(造佛)과 같은 추선(追善)에 의해 사후극락왕생을 기원하였다.¹⁰⁾ 가난한 양인들은 현실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종교에 귀의 의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법회를 열거나, 절을 짓거나 하는 불사를 행할 수 없으므로 출가를 통해 불교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진정도 예외는

7) 무기의 『釋迦如來行蹟頌』에 보면 부모의 은혜를 설법하고 있는데, “처음 태에 품으신 뒤부터 열 달 동안 마음을 놓지 않으며, 또한 낳을 때 고통이 끝없으나 낳은 뒤에는 괴로움을 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품에 안아 젖을 먹여 기르며,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 자식이 커서는 모셔 봉양받는 것을 잊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놓아 주어 스승에게 맡겨 출가하여 출세간의 업을 닦게 하니 아버지의 은혜가 가장 깊다.” 라고 하였다. (김월운 편, 『釋迦如來行蹟頌』 (동문선), 2004.) 자식이 장성하면 봉양받을 것을 잊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짐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출세간의 업을 닦게 해 주는 부모의 은혜가 심히 크다는 것이다. 진정의 노모는 아들의 출가를 권해 불법을 닦게 하였으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다 한 셈이다.

8)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서울:一潮閣)1997, 96-97쪽)에 의하면 의상은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로서 화엄종을 통해 신라 중대의 불교 문화를 사상적, 이념적으로 뒷받침 해 준 인물로 그의 화엄사상은 대립과 항쟁을 거듭하는 정계와 사회를 정화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과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인심을 통일하는 데 알맞았다고 보았다.

9) 金英美, 『新羅佛教思想史研究』, (서울:民族社) 1994, 113-162쪽

10) 이기동, 앞의 책 100-111쪽

아니어서, 출가를 통한 추선을 통해 자신과 어머니의 정토왕생을 빌었던 것이다.

다음은 대성(大城)이 전세와 현세의 부모를 위해 사찰을 세워 효행을 다 했다는 불국사 창건과 관련된 설화이다.

김대성의 이야기는 앞선 진정법사의 “孝善雙美”한 이야기와 서사적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부모를 봉양하고 부처에 시주함으로써 진정한 효를 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성 역시 진정과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복락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을 기꺼이 스님에게 보시하였다. 진정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가 시주를 주도적으로 행한 것에 반해, 대성은 어머니를 빌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받을 시주하는 것으로 대비된다. 보시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서사의 핵심은 근색한 생활 중에서도 모든 재산을 시주하는 일에 모자(母子)의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보시공덕으로 인해 김대성은 좋은 가문에 환생하게 되며, 훌륭한 불사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 어머니 역시, 환생한 아들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일 아들은 불국사를 창건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불교적 구원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한 몸으로 전생과 현생을 오가며 두 부모에게 효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시(善施)의 영험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난했던 어머니가 부귀를 겪게 된 것은 아들의 효성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은 보시공덕이었다. 생활의 유일한 기반인 받을 모두 사찰에 시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덕분에 대성의 어머니는 환생한 아들에게 환대를 받아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진정의 노모가 적극적인 인도자였다면, 대성의 어머니는 소극적 추종자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들로 인해 후세의 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모자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들 효행으로 궁극적 도달점이 종교적 구원임을 설파하고 있는 점에서도 진정설화와 주제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을 불법으로 인도하여 여성 자신의 성불을 가능하게 하는 불교적 장치를 열어줌으로써, 여성의 한계국면을 극복,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대성은 장성하면서 사냥을 좋아하게 된다. 이 때 곰사냥이 계기가 되어 감동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원력이 심화되었고, 결국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불국사와 석불사 창건으로 귀결된다. 보시 공덕에 의해 가난을 접고 부유하게 되는 물질적 환경의 변화가 가능했다면, 곰 사냥으로 인한 꿈의 깨우침은 불법에 귀의, 절을 창건하게 되는 정신적 각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물질적 변화를 넘어서는 정신적 깨우침을 겪으면서 불법의 완성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다름아닌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다. 보시 공덕이 어머니의 동의로 인해 실천되었다면, 꿈에 나타난 꿈의 위협적인 언사역시, 어머니의 다른 형식을 통한 준엄한 깨우침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꿈으로 상징화되는 어머니의 계도를 통해 대성은 한 번 더 정신적인 각(覺)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좋은 기문에 환생하게 된 것은 어머니에 대한 물질적 봉양을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효행이었다. 어머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꿈의 형식으로 꿈의 외양을 빌어 깨우침을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아들로 하여금 살생의 죄를 엄정히 꾸짖어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고 결국 절을 세워 불법에 귀의하도록 선도하였다. 단순히 배를 부르게 하고 등을 따뜻하게 하는 양구(養口)차원의 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귀의하여 사찰을 창건하여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

11) 단군신화에 보이는 웅녀의 전신이 바로 곰이다. 단군신화에서 곰은 호랑이와는 달리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내적인 힘을 가진 이상적인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동면하는 곰의 생물학적 특성을 지상을 대표하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지모신적 성격과 쉽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곰을 여성성, 모성을 갖춘 신성한 동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의 효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는 데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이 있음을 예증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법사와 김대성의 이야기는 어머니에 대한 효에 주목하고 있다. 불교 경전의 교리, 설교가 여성을 기피하면서도¹²⁾, 모성,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고 자식의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모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불교가 모성을 긍정하며 어머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대의 가족제도, 사회분위기, 불교의 여성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효설화가 가난하고 미혼인 아들과 늙은 노모의 관계로 표출되는 것은 효의 문제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복잡한 윤리의 문제였던 당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들에게 효란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늙은 노모를 봉양하는 일이 더욱 난감한 연쇄적인 난제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력을 갖춘 아버지에 비해 늙고 무능한 어머니는 적절한 보호가 요구되는 효양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또한 자식과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고 집 안에서 자식의 실제적 교육을 담당하였던 어머니

12)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보이는 여성기피 교설에 관해서는 勝浦令子, 『女の信心』(東京, 平凡社) 1995, 157-159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성은 성불할 수 없으며 (女性不成佛論) 여성은 뛰어난 법력과 수행력을 가진 존재로 절대 될 수 없다는 (女人五障設)과 같은 초기 인도불교의 입장이 불교전파와 함께 각각의 나라에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초기 인도 불교는 이와 같이 반여성적이었지만, 개별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또한 허홍식은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06-109쪽)에서 불교의 여성관은 불교가 발생한 인도의 사회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일부다처제였고 석가 자신도 출가하기 전에 3명의 妻가 있었으므로 고대 한국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불교경전에 여성은 분명히 남성보다 하위의 존재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고대 삼국의 여성들은 인도나 중국에 비해 지위가 높았는데 이는 남녀동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사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의 역할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대 삼국시기 여성의 위상은 인도나 중국에 비해 낮지 않았으니 이는 여성화랑, 지혜와 덕망을 갖춘 선덕여왕, 김유신의 어머니... 와 같은 여러 일화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¹³⁾. 모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강조는 여성에 우호적이고 남성파 평등한 수평구조 속에서 여성을 수용한 고대 한국 특유의 사회상에서도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어머니가 강조되었던 이유는 이들은 자력으로 득도성불하는 방법 이외에도 자식을 선도하여 불법에 귀의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력을 잠재적으로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父母恩重經』 『孟蘭盆經』과 같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에서 부모의 은혜를 설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잉태, 출산, 젖을 먹여 양육한 어머니의 은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불경들의 유입은 어머니에 대한 보은의 중요성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불교적으로 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교리 안에서 여성을 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모성존중과 긍정적 어머니 상의 창출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성불은 쉽지 않지만, 어머니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는 상응하는 보답이 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깨닫게(覺)하여 보시공덕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출가하여 불법에 정진하게 하는 것이말로 어머니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어머니 자신이 왕생 성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어머니로서는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력을 통해 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는 수호신적, 지도자적 위치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들 역시 어머니께 보은하는 길은 어머니를 종교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출가시킴으로 인해 자신의 후세를 구제받게 되고 자식 역시 부모의

13) 최숙경 『韓國女性史』(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118-141쪽

은공에 보답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성의 긍정과 융통성 있는 포용의 논리로 인하여 여성 신도들을 불교 안으로 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노모의 봉양을 거두고 출가하는 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효에 대한 자책의 참담함을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 노모의 극락왕생을 도울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라는 논리로 상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천 가능한 효행을 불교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석으로 전달하여 불교적 의미 망안에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포용하였다. 아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어머니와 어머니를 왕생으로 견인하는 아들의 관계는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母子觀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도 수록되어 있는 향득의 할고설화인데, 대성, 진정한 불교적 성취와 견주어 보면 불교적 감응이 미미하다. 자신의 신체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부모를 봉양한 결과 복을 받았다는 선인선과(善因善果)의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 불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향득사지(向得舍知) 할고공친(割股供親) 경덕왕대(景德王代)

웅천주(熊川州)에 향득(向得)이란 사지(舍知)가 있었다. 흉년이 들어 그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자 향득은 다리의 살을 베어 봉양했다. 고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세히 위에 아뢰니 경덕왕(景德王)은 곡식 500석을 상으로 하사했다.¹⁴⁾

아버지가 효양의 대상이 된 유일한 효선 편 이야기이다¹⁵⁾. <효선> 편에

14)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

能川州有向得舍知者。年凶。其父幾於婚死。向得割股以給養。州人具事奏聞。景德王賞賜租五石。

15)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서 효행을 표상한 실제 문서에서 효의 대상이 주로 아버지이며 후기 문헌설화에 실려 있는 효행설화에서 효의 대상은 전적으로 아버지인데 반해, (김대숙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口碑文學研究』 3집, 178-201쪽) 『삼국

실린 다섯 편 설화의 중심에 배치되어 어머니에의 효양만을 보여주는 치우침에 균형감을 실어주고 있다. 불교가 어머니의 봉양에 집중하여 아버지를 모시는 효행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에도 일정한 방어를 하고 있다. 향득의 설화에서도 가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효가 가난한 기층민들에게는 상당한 희생을 동반하는 사회윤리였기에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으로 인한 효 실행의 장애와 갈등을 불교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산과 관련된다.

향득설화에서 주목할 소재는 자신의 신체 훼손이다. 할고는 부처에게 보시할 수 있는 술이나 밭과 같은 물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자신의 업으로 부모를 위해 보시하는 극한적인 실천양상이다. 진정과 대성의 효가 물질적 보시였다면, 향득의 행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사신시(捨身施)라고 할 수 있다. 사신이란 수행의 일종으로 보은을 위해 속계에서 살을 찢거나 지지고, 팔을 끊거나 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불문에 들어가는 것¹⁶⁾을 의미한다. 자신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온 것이므로 털끝하나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된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할고행위는 내가 지금 보시하는 대상은 전세에서 자신의 살을 베어 나를 살렸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세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줄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불교적인 윤회환생관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현세에 존재하는 자신의 실존자체가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세를 위해 혹은 전세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향한 진정한 효라고 이해한 것이다.

향득설화에는 여성의 역할이 전면에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지혜와 결단력으로 상징되는 정신적 차원의 문제들이 남성에게는 신체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무모할 정도의 과단성있는 물리적인 행동력

유사」 효선의 설화들은 어머니에 대한 효행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6) 이승녕 외 김수, 『대국어사전』, (현문사), 1986. 991쪽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덕목들이 지혜와 판단력이라면 그것의 대비지점에 남성의 추진력이 할당되어 있다. 이러한 대비는 감상적 판단을 하는 남성에 비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여성의 우위를 잠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실천력이 결핍되어 있는 여성들에 비해 추동력을 갖춘 남성의 효행양상을 이상화하는 당대의 일반적인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여성들에게 결락되어 있는 현실적 실천구동력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이 감당하는 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물질적인 보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효를 행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예시를 통하여 효행 실행의 범위를 확대하여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적 효행의 과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III. 민첩한 슬기와 분별의 아내

손순매아 설화는 손순이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매장하려는 각오를 하면 서까지 늙은 노모를 봉양하려 하였더니 하늘이 감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복분을 내렸으며 이에 손순은 절을 세워 자신의 효를 마무리하였다는 내용이다.

손순이 효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산채로 매장하려 하였다는 내용은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비상식적이고 반도덕적인 이야기라 하겠다. 다행히, 아이를 희생시키지 않은 채 손순의 순후한 효성이 하늘에까지 이르러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설화의 주제적 국면은 아이를 산채로 매장하여 살인하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자식을 희생하려는 각오로 효를 실천했던 손순의 “지극한 효

심”이다. 다시 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어머니와 다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존재인 아이 사이에서 자식에 대한 본능적 사랑을 억누르고 어머니를 선택했기에 손순의 행위는 효의 문맥에서 읽히게 되는 것이다.¹⁷⁾

손순의 효는 주체적 결단의 형식으로 미화되었다. 결단은 부모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것이고 결과는 희생을 불교적 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손순 설화의 여성인물은 어머니와 손순의 아내이다. 노모는 자식의 봉양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무기력한 존재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의존자인데, 그녀를 공양하는 것이 손순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여기서 문제의 해법은 아들자식을 희생하는 것으로 도출된다. 시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매장하여야 하는 비통함과 참담함을 그의 아내는 이견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¹⁸⁾. 손순의 아내는 진정과 대성의 어머니가 보여준 지혜와 결단력을 넘어서는 감정절제와 인내심의 미덕까지 갖추고 있다. 그녀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와 희생을 감내하는 인내심, 넓은 시각으로 극한 상황을 이해하는 포용력이 있기 때문이다. 손순의 아내는 술을 시주하고 받을 시주하지는 아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불교적 효를 실행하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한다. 자식을 생매장하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쪽은 손순이지만, 이

17) 강진욱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1985, 143쪽

18) <자식죽여 부모 받들기> 설화는 효의 본질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모섬김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는 반대급부로 상쇄하려 한다. 또한 부모를 위해 자식을 희생해야하는 상황에서 항상 일을 앞에서 끄는 역할을 며느리가 맡게 된다. 이는 며느리가 가지는 가정 안에서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고, 시모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시모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통이겠고 결단이 그만큼 어렵기에 오히려 며느리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감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김대숙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口碑文學 研究』 3집, 1996, 195-196쪽

를 수궁하고 부모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효라고 인정하는 것은 손순의 아내이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피붙이를 바쳐야 하는 일은 며느리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터이니,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과중한 기능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를 업고 산에 올라 땅을 파던 부부는 기이한 석종을 얻게 된다. 이때, 손순의 아내는 매우 지혜로운 해석을 한다. 종을 얻은 것은 아이의 복이므로 아이를 희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다. 종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통찰력과 아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애끓는 모정은 비통한 상황을 순식간에 희망의 상황으로 반전시킨다. 손순이 자식희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반해, 아내는 자식을 구원해서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상황 해석의 기지를 발휘하였다. 아내의 현명한 판단은 가족의 고통을 소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식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않고도 집과 곡식을 포상 받아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절로 삼는 불교적 선업을 배필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암시에 대한 탁월한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설화의 이면에 숨어 있다. 지극한 효도를 한 사람은 손순이고, 하늘을 감동시킨 것도 역시 손순의 효심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여성에게 효도를 강권하지 않고 내밀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효의 실천을 강요하였던 불교의 사회적 포교 방식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실상은 조력자의 입장에서 묵묵히 남편의 뜻을 받드는 것이 여성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덕목임을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희생과 헌신의 딸

효선 편을 맺는 동시에 『삼국유사』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가난한 젊은 여성의 헌신적인 어머니 봉양”에 관한 것이다¹⁹⁾. 가난, 젊은 여성, 특단의 효라는 세 가지 요소는 구비전승의 동인이면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윤리적 덕목으로써의 효행이라는 스펙트럼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여성들까지 흡수, 사회 질서 안에 편입시키려 했던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효행이라는 대사회적 윤리덕목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의 자기 희생을 요청하였고, 과도한 희생은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아래 여성을 효녀라는 칭송의 대상으로 미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 부모에게 효친을 다 한 젊은 여성이 살던 곳은 분황사의 동쪽 마을이다. 『삼국유사』의 <광덕 업장>²⁰⁾조의 광덕은 분황사 서리에 살았으며, <분황사천수대비명아득안>²¹⁾조에 의하면 희명이 눈이 멀자 그 어머니가 분황사에 데리고 가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분황사는 자장과 원효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찰임과 동시에 호국불교, 관음신앙, 화엄정도만 다라의 중심사원이며 경덕왕이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30만근이 넘는 약사여래를 주조하여 봉안할 정도로 경덕왕 당대

19) 빈녀양모설화와 유사한 효녀지은 이야기가 『삼국사기』 권48에 수록되어 전한다. 지은은 연권(蓮權)의 딸로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나이 32세가 되도록 출가하지 않고 살다가 끝내는 살림에 쪼들리게 되어 쌀 여남은 섬에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통곡을 하였고 지은도 함께 울었는데, 마침 장면을 목격한 화랑 효종랑(孝宗郎)이 그 효성에 감탄하여 곡식 100섬과 옷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낭도들도 각각 곡식을 보냈으며, 왕도 이를 알고 곡식 500섬과 집을 하사하여 잘 살도록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술 내용에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야기의 기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삼국사기』가 사건중심의 간략한 기술인데 반해, 『삼국유사』에는 불교적 보상과 문학적 해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0) 『三國遺事』卷五, 感通 七, 廣德嚴莊

21) 『三國遺事』卷三, 塔像 四,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에 중요시되던 절이기도 하였다²²⁾. 분황사는 신성한 종교적 영험을 가진 곳으로 병고와 가난으로 시름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었다. 가난한 여인과 눈 먼 늙은 어머니가 살았던 분황사의 동쪽 공간은 궁핍과 절망을 불교적 신심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던 두 사람이 주거하는 곳으로 불교적 감응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분황사 동쪽이라는 공간은 궁핍한 사람들의 공간이며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에 불교적 감응을 나타내는 곳을 상징한다. 이러한 공간은 여성과 쉽게 연결되는데, 이는 현실 생활의 꾀진함을 절절히 느끼는 것도 여성이요, 현실적 고통을 정면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불력에 의해 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염원이 강한 것도 여성이기 때문이다. 임신, 출세와 같은 사회적 욕망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안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개인적 생활의 욕구에 불교는 적극적으로 응대하였다. 현세적 생활고의 해소는 분황사와 같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이한 이야기를 통해 실제적 파급력이 확대, 강화되었을 것이다. 여성에게 요청되었던 자기희생이 불교적 보상이라는 포상형식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생성, 회자되었음에 주목하게 된다.

효녀설화는 극단적인 효행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가 되는 것이 그것인데, 가진 것을 모두 시주한 다든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든가, 자식을 희생한다든가 하는 효행의 방법들은 자신의 희생을 보상해줄 수 있는 나름의 상쇄논리가 있다. 불법에 귀의하고 나면 재산의 무의미한 것이며, 신체의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으며, 자식도 새롭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 번 적을 팔아 최하층 신분인 노비로 전락해 버리면, 양인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사노비가 되고 나면, 주인 재산으로 인정되게 됨으로 상속, 증여, 매매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

22) 최정선, 『三國遺事 觀音說話와 그 詩的 變容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110쪽

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효녀가 스스로 노비의 신분을 택한 것은 자기 희생과 엄정한 결단력이 요구되는 행위였다. 효녀는 빈곤층의 일반 양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실행하기 어렵고 자기고통이 따르는 효를 실천하였다. 사회의 변두리인이자, 하층의 약자인 여성으로 살아 남는 방법은 자신 스스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자기 존엄성에 대한 파괴자체를 “효”의 미덕으로 칭송함으로써 여성에게 지극히 중압적인 윤리 의무를 내밀하게 강요하였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딸의 살신적인 효를 수용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직감적인 모성이다. 비록 육체적인 인락함과 구복의 충일감을 얻었다 해도, 심적인 불안함은 계속 감지되는데 이는 곧 모성 본능에 의한 “어머니”만이 소지 가능한 딸과의 정신적 의사소통행위이기도 하다. 젊은 여성으로 대표되는 딸에게 가혹한 자기 희생이 요청되었던 것에 반해, 어머니는 상황에 대한 직관적 감지력과 모성을 겸비한 영적인 존재로 표상화되었다. 또한, 구복의 효만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효를 행한 젊은 여성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단편적인 시각을 보정하는 장치로 어머니 정서를 균형있게 활용하였다. 이는 여성을 완전하고도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배재할 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 근거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불완전한 여성이지만, 세월에 의해 지혜의 어머니가 되며, 불교적 신심에 의해 남성과 평등한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당대 여성들의 소망 내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효선의 마지막 이야기는 젊은 여성으로 구복봉양에만 힘쓰고, 부모의 마음을 깊이 추찰하지 못한 연유로 “반듯한 효”를 실행하지 못한 미진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숙한 여성에게는 효를 행하려는 마음의 진정성은 있으나,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살피지 못하는 편협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노정함으로써 효의 올바른 실천 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²³⁾. 아울러 젊은

23) 이러한 점은 손순의 이야기와 대조된다. 손순이 자식을 매장하려고 한 것 역시, 노

여성이 효를 위해 자신의 실존적 존재감마저 훼손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효의 문제가 결국, 여성, 남성의 문제도 아니고, 불교적 신심의 깊고 얕음도 아니며, 물질적 재산의 유무와 같은 외형의 조건보다는 순후한 마음의 진정성에 더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는 효행을 설명하는 불교의 포용적 시각의 단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효 실행의 본질은 부모의 은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것이니 살아 생전 보낼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지극한 성심을 가지는 것에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본질적인 순후함이 방법적인 무모함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 이는 불교가 원하는 효행의 본상이 진정한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효선의 이야기들은 실천 가능한 효의 다양한 행태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효의 핵심에는 진정성과 순후함이 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효선 편 설화의 효행실천주체가 대부분 남성이었던 것과 달리, <빈녀양모>설화는 여성의 살신적 효도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을 효 실행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효행은 남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강조함으로써 효행의 적극적 실천을 권유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불교는 효의 주체적 실행의 스펙트럼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효”의 실천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모의 구복봉양만 생각한 것이지, 손자를 잃은 후 상심하게 될 부모의 마음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불완전한 효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순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찬사와 사회적 보상만 강조될 뿐, 부모의 마음을 미처 배려해 드리지 못한 편협함은 지적되지 않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던 효의 기준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에게는 정서적, 감상적 배려까지 요구되었던 반면, 남성에게는 강한 실천력과 추진력이 오히려 존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은 여성에게 효의 실천을 권유하는 방식이 남성에게 요구된 것에 비해 극단적 강제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효친은 부모의 구복만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심리까지 살펴 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여성의 효행에서 결핍될 수 있는 “시려깊음”을 실천적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효 실행의 주체로 흡수함과 동시에 여성을 불교의 울타리 안에 평등한 주체로 수용하고 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과 구별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에게는 극심한 자기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은밀하게 강요되었는데 이것을 표상하는 방식이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현신을 긍정함으로써 이상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V. 마무리

『삼국유사』 효선 편에 실린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불교적 관점에서 이상화된 어머니, 아내, 딸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교신앙을 확산, 대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성불할 수 있는 평등한 객체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성성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인 어머니, 아내, 딸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부과함으로써 여성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투영하였다. 자식을 인도하여 불법에 눈뜨게 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의 출가를 권고하는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실천가로서의 모성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결단의 어머니는 궁극적으로 자식의 출가로 인해 현실의 고난을 벗어나, 내세의 복락을 보장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첩한 슬기의 여인으로 형상화된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이자, 상황 판단과 사건 해석의 영민한 분별자이기도 하다. 아내의 이

성적 판단은 곤궁한 가정을 전도시키는 변혁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살신의 효를 감행하는 젊은 딸의 과단성 있는 자기 희생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또 다른 기대치를 보여준다. 딸의 효행은 불력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인과응보의 결말로 이어지지만, 딸의 무모하다 여겨질 정도의 자기부정과 헌신은 여성에게 강제된 강도 높은 효행이었다.

결국 불교는 수평적 사회구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 역시 차별없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용양상은 여성의 이미지를 모성과 지혜, 판단력과 같은 지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미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성적이며 자애와 헌신의 모습으로 이상화된 여성성은 건국신화나 무속신화, 전래 고대설화에서 이미 보이던 지모신적인 여성상이 불교의 확산을 위해 불교 설화로 흡수, 새롭게 주조된 고대 삼국의 독특한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러나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불교가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기대되는 여성 이미지를 충실히 재현하기 힘든 필요조건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교가 당시 권력과 결부된 정치, 지배 논리로 기능함과 동시에 일반 기층민들의 생활 신앙양식으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흡수하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적이었음을 실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도 불교 안에서는 남성과 같이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확보, 불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포용의 시각을 견지하는 한편, 여성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자질들은 결국 남성을 매개로 하거나 그들을 조력함으로써 상생적인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그 사회의 특성을 지속시키면서 수용되어 가는 과정의 반영임과 동시에, 남성중심의 기존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성의 지혜와 분별력과 같은 이성적인 덕목에 주목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선> 편은 『三國遺事』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주제적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一然은 서문에서 고대 삼국 역사의 추동력을 불교적 神異로 파악하였다. 그는 단군신화에 대해서도 환인을 그의 아들로 풀이함으로써 한민족의 기원부터가 불교 세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효선> 설화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기층민까지 효의 기존 사회윤리를 통해 불교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완결되고 있다. 아울러, 남.녀에게 요구되는 효의 양상에 구별은 있으나 차별없는 불력구제로 인해 불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불력의 신이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인해 불교적 신이 체험을 “효”를 통해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어

불교(Buddhism), 여성(female), 지혜의 어머니(wise mother), 슬기의 아내(clever wife), 자기희생의 딸(devoted daughter), 이상화된 여성 이미지 (Idealized woman images)

A research of Buddhism and female identity in 『Samgugyusa』 hyosun

Choi, Jung-sun

This study focuses on the idealized images of mother, wife and daughter which was represented in 『Samgugyusa』(三國遺事) hyosun(孝善). The result shows that it beared a positive standpoint toward woman sush as woman could attain Buddhahood as an equal being to man. Furthermore, it created ideal woman images as an active and positive way. That is to say, they put wisdom, cleverness and logical affirmation images into female characters like mother, wife and daughter respectively. Wise mother could be reached Jouncto(淨土) by his son's dedication to Buddhism, clever wife also could play an active role as a helper who might give a clever advice or a solution over the filial duty. Finally, a young and poor daughter was expected to sacrifice herself in order to fulfill her filial piety.(孝)

These positive images of woman could be related with ancient Korea's myth and old tales which also have produced extremely active images of women in the history. Along with this historical narrative convention, expansion of Buddhism should cooperate with positive woman images in order to enlarge Buddhism power.

However, even though they interpretate woman as a bright and

clever being, the way of practice this positive woman images needs man's support. It clearly shows that Buddhism have aimed at equality between male and female figure, however, it also had draw a limit for woman. That is to say, woman could obtain idealized images which was expected in terms of Buddhism through supporting man. Nonetheless, discovery of positive woman images could not be ignored.

Finally, <Hyosun> plays an active role in consolidation of main theme of 『Samgugyusa』(三國遺事) which was shini(神異). This important theme is presented through the poor who was belong to the lowest class in ancient Shila(新羅), could be protected and saved by Buddhism.